

24-2학기 기업제안형

CHATGPT 4, CHATBOT BUILDER를 활용한 장편영화 시나리오

CONTENTS

- 01 트렌드 리서치 (장르/키워드)
- 02 시나리오 기초 구성 (로그라인, 시놉시스)
- 03 등장인물/세계관 구성
- 04 이미지 생성
- 05 시나리오 작성 및 완성
(3막 구조, 장 구조, 트리트먼트, 대본)
- 06 최종 결과물 - 시나리오 북

01 트렌드 리서치 - 장르

1차: 'ChatGPT 4o' - 시청률과 화제성 순위를 바탕으로 4년 주기의 트렌드와 10년 이상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메가 트렌드 작품 리스트업

2차: '구글트렌드' - 리스트업한 작품을 토대로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파악

3차: 트렌드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4분기(출품일 기준) 장르적 트렌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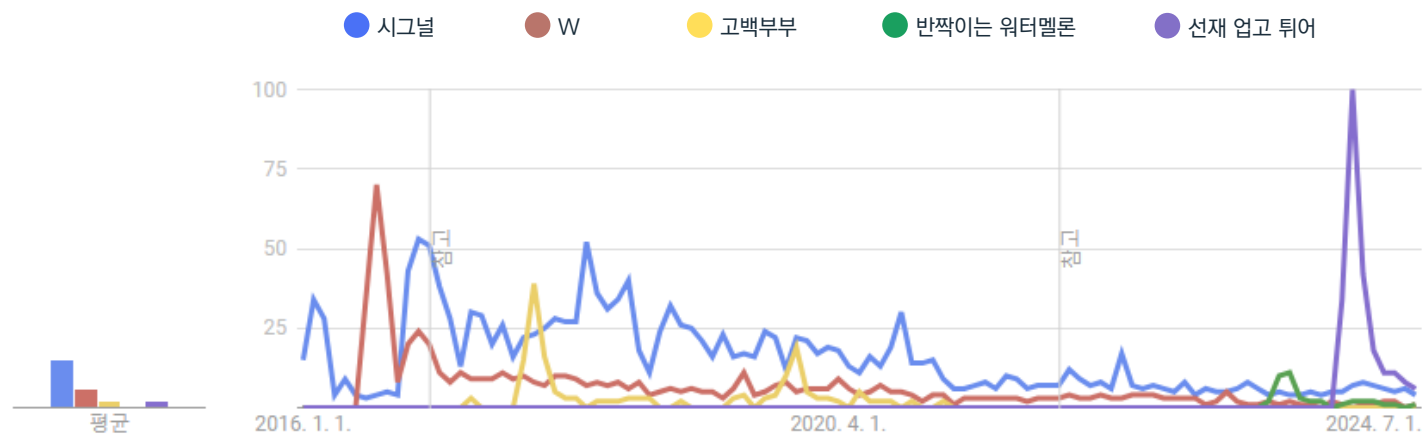
그 결과, 시간을 소재로 한 '타임슬립'과 판타지, 휴먼, 로맨스 장르가 메가 트렌드임을 파악

너는 현재 작품에 대한 '장르'적 트렌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이야.
작품의 장르적 트렌드는 3-4년을 주기로 들고 있어. 또한 10년 이상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메가 트렌드가 된 장르도 있지.
너는 3-4년을 주기로 하는 '장르' 트렌드와 10년 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고, 2024년 4분기에 트렌드가 될 작품의 '장르'를 예측해봐.



장르적 트렌드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3-4년 주기로는 빠르게 인기를 끌고 쇠퇴하는 장르가 있는 반면, 10년 이상 장기적인 인기를 끄는 장르도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②



01 트렌드 리서치 - 키워드

요즘 20대들의 관심사는?

'ChatGPT 4o' - 20대 이슈와 트렌드 키워드 조사

*프롬프트 입력: 역할 부여, 목적, 정보의 출처 명시, 조건과 지시문 형태로 프롬프트 작성

해당 키워드는 메인 플롯보다 **장치적 소재**로 활용하여 디테일적인 부분을 구체화



6개의 키워드 선정
: 취업, 관계, 취미, 자기계발, 사랑, 중고거래



너는 현재 트렌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연구소의 직원이야.
최근 코로나 이후 특징적으로 유행이 되었던 키워드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해. 구글과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검색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20대를 기준으로 특징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키워드를 찾아줘.



메모리 업데이트됨

사이트 4개 검색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화제가 된 주요 트렌드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주요 키워드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02 시나리오 기초 구성 (로그라인, 시놉시스)

‘ChatGPT 4o with canvas’ 이용 - 글쓰기 특화 모델

장르 트렌드 리서치 결과 기반_판타지(시간 소재), 휴먼, 로맨스
ChatGPT 이용 **로그라인** 생성

*로그라인 - 이야기의 흐름을 1~2 문장으로 요약한 줄거리

50 → 10(정제 및 축소) → 15(신규 추가)
→ 3(혼합 및 변형) → 9(키워드 트렌드 반영)
→ 3(선별 및 로그라인 필수 요소 추가)

*로그라인 필수 요소 - 주동인물, 목표, 장애물, 행동, 반동인물 or 다른 주동인물

최종 로그라인 후보 3개 선정

ChatGPT 4o with canvas

너는 이제부터 영화 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야. 너는 이번에 제작사에서 새롭게 제작할 상업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려고 해. 최근 성과가 좋았던 작품들을 레퍼런스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장르는 '힐링, 로맨스, 휴먼' 장르로 설정되었어. 우선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1~2문장 단위의 로그라인을 서로 다른 스토리로 50개 작성해 줘.

Healing Romance Loglines

여기 50개의 힐링, 로맨스, 휴먼 장르 로그라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을 담았으니, 이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발전시켜 보시거나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로그라인에 대해 더 발전시키고 싶으시면 알려주세요!

Healing Romance Loglines

35. 봄약을 포기했던 남자가 시골에서 만난 여사를 통해 다시 봄약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
36. 번아웃을 겪고 있는 직장인이 시골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되찾아가는 이야기.
37. 부모님의 낡은 집을 수리하며 지내는 여자가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38. 시골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
39. 도시에서의 삶에 지친 여자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아를 되찾아가는 이야기.
40.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남자가 시골의 작은 펜션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힐링해 나가는 이야기.
41.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여자가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야기.
42. 사랑에 실패한 여자가 시골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
43.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시골의 작은 집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여자의 이야기.
44. 어린 시절 친구와 다시 만나 함께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가까워지는 이야기.
45. 외로움에 지친 남자가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46.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여자가 시골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열정을 찾게 되는 이야기.
47. 시골 마을의 작은 서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남자가 그곳에서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48. 오랜만에 찾아간 시골 마을에서 만난 사람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49. 도시에 지친 여자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50. 외로움에 지친 여자가 시골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02 시나리오 기초 구성 (로그라인, 시놉시스)

#1

“부모를 잃은 대학생 수진이 연인을 잃은 사진사 정우와 함께
죽은 이들의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특별한 사진관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2

"슬럼프에 빠진 작가 민호가 친구 진수의 조언에 따라
중고거래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기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이야기."

#3

"번아웃에 빠진 대학생 지은이 이별의 상처를 뒤로하고
시골 게스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며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02 시나리오 기초 구성 (로그라인, 시놉시스)

3개의 로그라인 후보를 바탕으로 시놉시스 작성

*시놉시스 - 작품의 의도와 줄거리를 3~4문단으로 요약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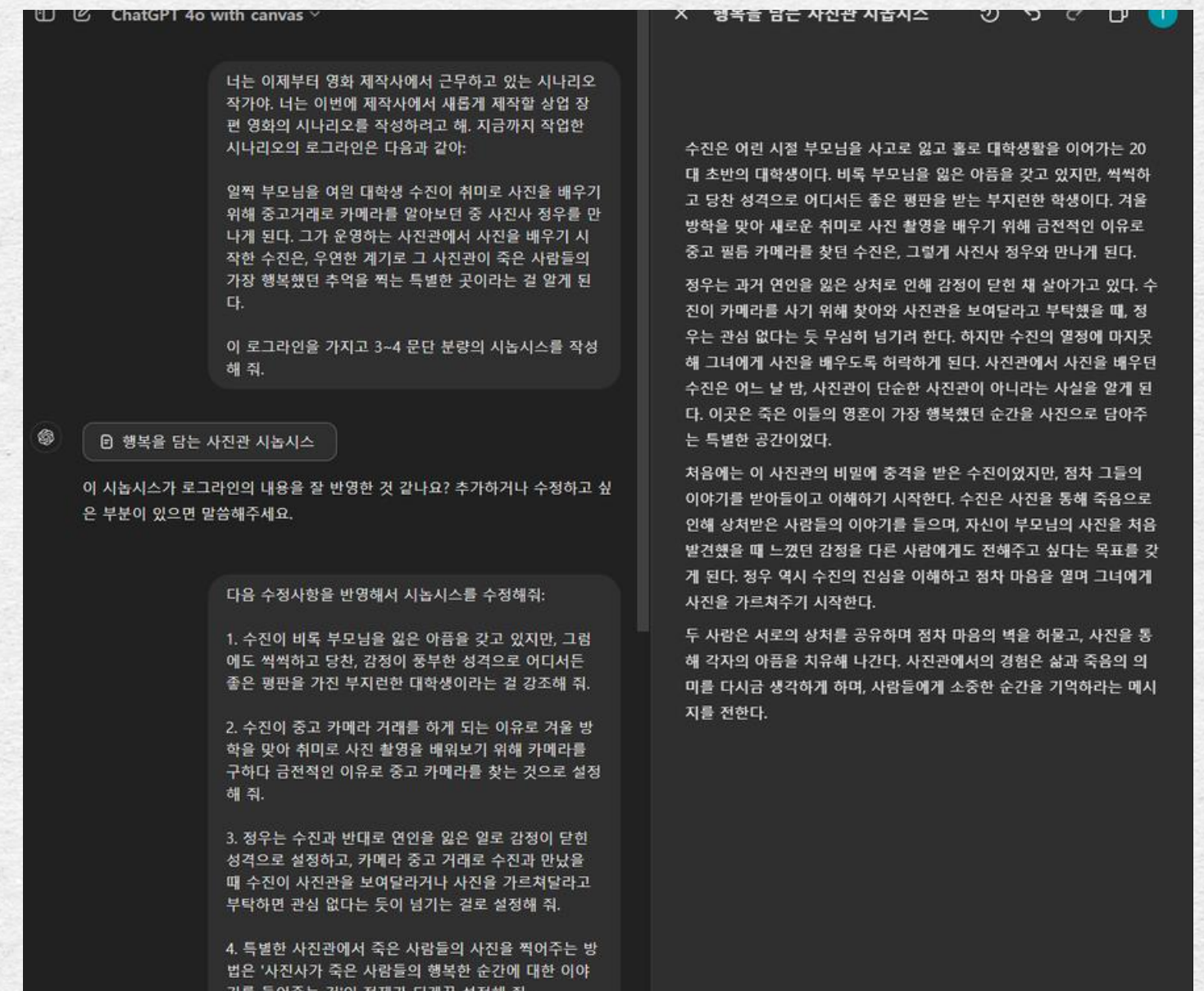
ChatGPT 페르소나 생성 - 역할 부여를 통한 효율 증대

“너는 이제부터 영화 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야~”

수정 사항 대화형 프롬프트로 적용 - 단계별 수정 진행

프로젝트를 진행할 최종 스토리(#1) 선정

→ “행복을 담은 사진관”



02 시나리오 기초 구성 (로그라인, 시놉시스)



시놉시스:

민호는 이른 나이에 작가로 등단해 데뷔작이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 이후 10년 가까이 차기작을 내지 못한 채 슬럼프에 빠져 있는 작가이다. 진수는 민호와 함께 작가의 꿈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찍이 포기하고 현재는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슬럼프에 빠진 민호를 걱정하며 글쓰기를 그만두고 자기처럼 출판사에서 일하자고 제안한다. 민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집 안에 글의 소재거리로 쌓아놓았던 물건들을 중고거래로 처분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다시 한번 글을 써보기로 결심한다. 민호에게 중고거래는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와 인연을 만나게 되는 창구가 된다. 거래를 통해 민호는 각기 다른 사연과 상처를 지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성공한 사회적 위치에 있지만 내면의 고독을 숨기고 있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청년, 현실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리고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사람 등 민호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이들과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이들은 민호의 글쓰기에 영감을 주지만, 동시에 민호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감정적 도전을 던진다. 각자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면서, 민호는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화해를 경험하고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글쓰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매 거래마다 민호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마주한다. 상대방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통해 민호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타인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간다. 민호는 점차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되어 간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글이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민호는 중고거래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글을 완성하게 되고, 그 글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자신이 원하던 작가의 길을 다시 걷게 된 민호는 비록 작가로서의 성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글을 쓰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

시놉시스:

대학생 수진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방학 동안 새로운 취미로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녀는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워보기 위해 중고 거래를 통해 카메라 한 대를 구매하게 되고, 판매자 정우와 만나게 된다. 사진사라는 정우의 직업에 관심을 가진 수진은 정우에게 사진에 대해 질문을 계속하고, 그런 수진을 보는 정우는 본인이 처음 사진을 배웠을 때를 떠올리지만 별다른 흥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수진은 포기하지 않고 정우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 없이 그의 출근길을 따라라 사진관을 찾아가고,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사오거나, 자신이 직접 찍어본 사진을 보여주는 등 사진관과 정우에게 관심을 보인다. 정우도 그런 수진의 노력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며 그녀에게 응대해주기 시작하고, 특히 그녀가 찍어온 사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은연 중에 수진에게 사진을 가르쳐주게 된다.

그렇게 정우의 사진관에 다니면서 조금씩 사진을 배우던 수진은 어느 날 늦은 밤에 정우의 사진관을 찾게 되고, 평소와는 다른 다소 기괴한 차림의 손님들이 찾아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정우는 사진관의 비밀을 들켰다는 사실에 놀라며 얼어버리고, 처음보는 광경에 수진은 그만 크게 충격을 받고서 자리를 떠나버리고,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에 며칠 간 정우의 사진관에 가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사진관에서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무선 이어폰을 떨어뜨리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수진은 며칠을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정우에게 연락하여 다시 정우의 사진관에 방문한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정우에게 수진은 용기 내어 사진관의 비밀에 대해 묻고, 정우는 수진에게 밤까지 남아 직접 보겠냐는 제안을 한 후 밤이 되자 수진에게 특별한 손님을 받는 특별한 사진관에 대해 알려준다. 정우의 사진관이 사실은 죽은 이들의 행복한 추억을 담은, 다음 생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주는 특별한 사진관이었던 것이다.

수진은 처음에는 사진관의 비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밤의 사진관에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거부감을 차마 떨쳐내지 못한다. 그러나 정우를 도우며 다양한 사연과 함께 자신의 행복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손님들을 하나 둘 맞이하며 수진은 점점 사진관의 비밀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결정적으로 사진관을 정리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발견하며 슬프면서도 그리운 복합적인 감정에 매료된다. 자신이 이러한 사진에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자기도 사진을 배워 누군가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남겨 그들에게 이번 생에 마지막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수진.

이후 수진은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사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사진을 찍는 법을 정우에게 배우기 시작하며 정우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실수를 거듭하며 정우에게 혼나기 일쑤였던 수진은 어느새 정우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혼자서도 손님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둘은 각자의 아픈 과거를 공유하면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이들과의 유대감을 서로 느끼게 된다. 그 이후, 어느 때와 같이 바쁜 사진관에 정우의 사별한 옛 애인 현지가 찾아오고, 정우는 수진의 도움에 힘입어 과거의 상처와 미련에서 벗어나 현지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찍어주게 된다. 수진은 정우의 마음을 열게 하는 동시에, 사진이 가진 치유의 힘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시놉시스:

대학생 지은은 도시 생활에서의 실패와 번아웃으로 인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 게스트하우스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과거 연인과의 이별과 경제적 어려움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해왔다. 게스트하우스는 지은에게 도피처이자 치유의 공간이다. 시골의 고요한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은은 자신이 잃어버린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자 한다.

게스트하우스에는 지은과 비슷한 이유로 이곳을 찾은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있다. 특히 따뜻하고 자상한 성격을 가진 직원 제현은 지은이 스스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다. 제현은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잠시 일을 쉬며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게 되었고, 지은의 아픔을 이해하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며 점차 가까워지게 된다. 이 외에도 각기 다른 이유로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지은은 타인과 다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간다.


지은은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을 통해 작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발견한다. 방을 꾸미고, 함께 요리를 나누며, 저녁 식사 후에는 다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의 순간들은 지은에게 깊은 위로가 된다. 하지만 지은의 과거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완전히 열지 못한 채로 갈등을 겪는다. 제현은 지은이 진정으로 자신의 아픔을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녀가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준다. 결국 지은은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다시금 삶을 향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 게스트하우스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을 치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는 법을 알려준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03 등장인물/세계관 구성

각 등장인물 별 필수 구성 요소 정리
- 나이, 성별, 직업, 성격, 목표, 성장

나이/성별/직업 - 외적 레퍼런스 설정 용도

성격/목표/성장 - 외적(표면적) + 내적(실질적)
→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등장인물 설정 가능

정우(남주인공)	
	
외적 레퍼런스 연예인: 장기웅	
나이	30대 초반
성별	남성
직업 및 신분	사진사
성격	<div>외적 특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뚝뚝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냉소적이고 차가운 이미지. 상처로 인해 상실감과 고독을 겪고 있는 인물• 경계심이 많은 - 사진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 상황에 항상 경계하는 모습• 다소 거친 외형-날카로운 턱선과 묵직한 눈썹• 깔끔하고 차분한 어두운 톤의 옷차림</div> <div>내면적 성격<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려 깊은 - 사진 작업과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깊이 생각함. 겉으로는 냉소적이고 차가운 태도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따뜻하고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 책임감이 강한 - 죽은 이들의 가장 행복한 추억을 담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낌</div>
작품 내 목표	<div>표면적 목표: 사진관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다.</div> <div>내적 목표: 과거 연인 현지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죄책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다.</div> <div>성장: 상실감과 죄책감을 극복하며 감정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과정. 처음에는 현지의 죽음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잃고 사진관을 운영하는 일에만 몰두하지만, 손님들의 행복한 순간을 담아내며, 그들의 기억을 통해 삶의 따뜻함과 희망을 되찾는다.</div>

수진(여주인공)	
	
외적 레퍼런스 연예인: 김세정	
20대 초반	
여성	
대학생	
특성	<div>외적 특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밝고 따뜻한 이미지: 활상 미소를 띠며 다정하고 친근한 인상• 호기심 가득한 눈빛: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드러나는 눈빛으로 주변을 탐색• 수수한 스타일: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이고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외모: 긴 머리와 온화한 얼굴선이 따뜻한 분위기</div> <div>내적 성격<ul style="list-style-type: none">• 끈기 있는 -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 열정적인 - 사진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몰두함.• 마음이 여린 -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과거의 상처가 있음.• 정이 많은-다정하고, 다른사람의 말에 공감을 잘하는 성격</div>
작품 내 목표	<div>표면적 목표: 사진사 정우를 설득해 사진관에서 함께 일하며, 사진을 배우고 싶다.</div> <div>내적 목표: 사진관에서의 경험과 정우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기억의 가치를 깨닫고, 상처를 극복하며 자신의 존재와 소중함을 이해한다.</div> <div>성장: 사진관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지우하며, 사진을 통해 삶의 소중한 순간과 의미를 깨닫는다. 정우와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유대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상처를 극복하고 더 성숙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된다.</div>

03 등장인물/세계관 구성

세계관: 시·공간적 배경 + 이야기 속 규칙/원리

시·공간적 배경 - 장면 구도 및 등장인물 동선 구체화

규칙/원리 - 등장인물 행동 양식 구체화
→ 그 자체로 서사 진행의 원동력이 되기도 함

세계관: 정우가 운영하는 사진관은 낮에는 평범한 사진관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고 자정을 알리는 괄종시계가 울리면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죽은 자들이 찾아오는 특별한 장소로 변한다. 이곳에 찾아오는 죽은 자들은 49재를 끝마친 영혼 중 환생의 자격이 주어진 이들이며, 이들은 환생하기 전에 이번 생에서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손님으로서 이곳을 방문한다.

손님은 사진사에게 자신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야기한다. 사진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셔터를 누르고, 사진관의 특별한 힘을 통해 손님의 기억 속 장면이 사진으로 남는다. 이렇게 찍힌 사진은 손님의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기록한다. 사진사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역할을 넘어, 손님과 사진관을 잇는 다리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과정을 통해 손님들의 감정과 내면의 이야기를 깊이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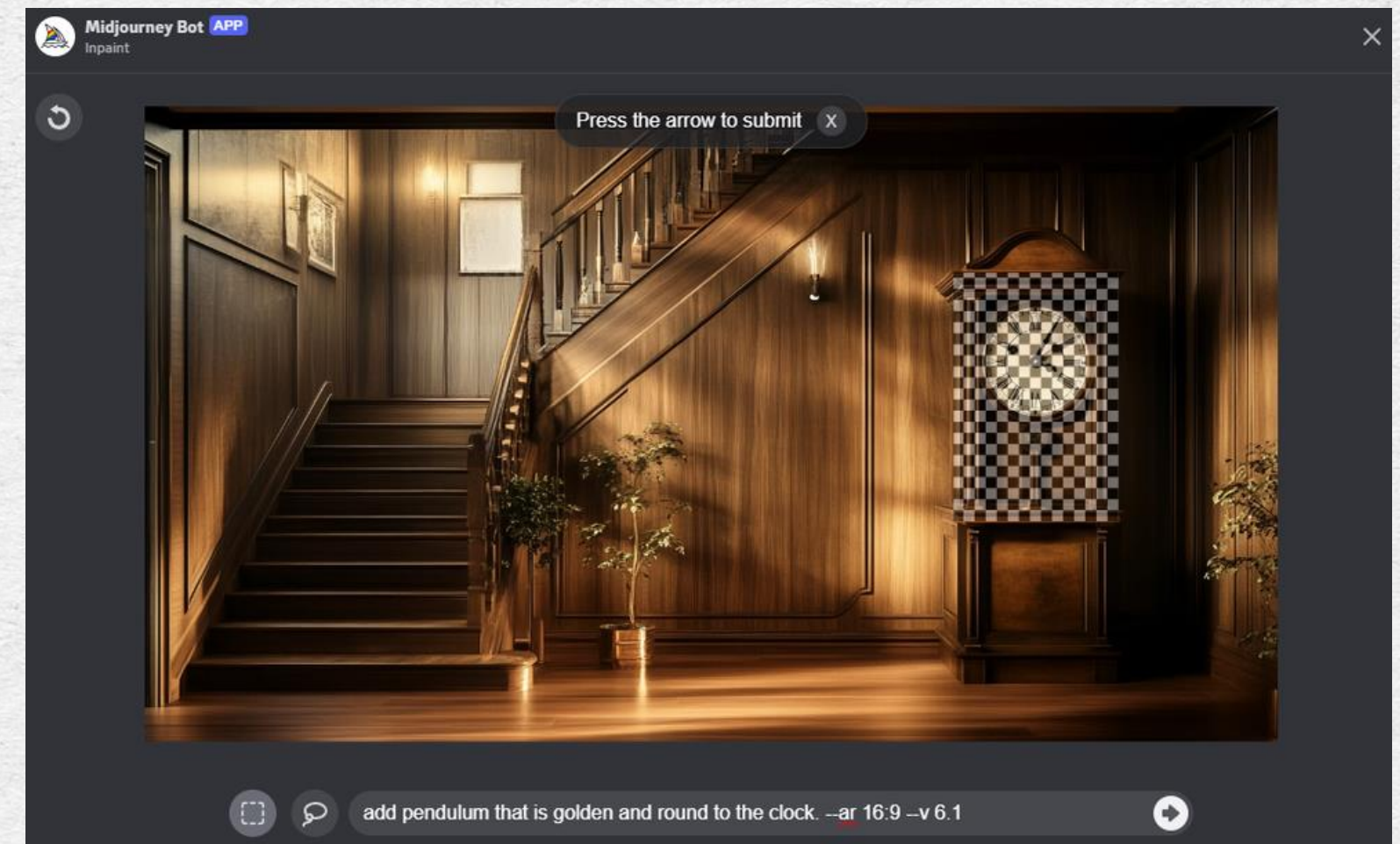
손님이 인화된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다음 생으로 넘어갈 준비를 마치고 형체가 연기처럼 사라지며 다음 생으로 떠난다. 손님의 사진은 액자에 담겨 사진관의 벽 한편에 걸려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의미로서 영원히 사진관에 남는다.

04 이미지 생성

이미지 관련 생성형 AI 서비스 '**Midjourney**' 이용
→ 시나리오 관련 주요 항목(등장인물, 배경) 시각화

Midjourney 이용 과정

- 1) ChatGPT 활용, 원하는 이미지의 **프롬프트 텍스트** 생성
- 2) Discord의 Bot 명령어 중 '**imagine**'으로 1차 생성
- 3)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Vary(Region)**으로 수정
- 4) 수정이 힘든 부분은 **외부 툴(포토샵)**로 수정



04 이미지 생성

〈'밤의 사진관' 외관〉



앞표지



뒷표지

“이승과 저승을 잇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하는 공간
밤하늘 아래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밤의 사진관의 모습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

04 이미지 생성

〈메인 등장인물〉



정우

“차분하고 냉소적이지만, 깊은 눈빛에 진중함이 담긴 인물, 어두운 톤의 옷차림과 카메라를 다루는 섬세한 손길로 묵직한 분위기 연출”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미소에서 따뜻함과 열정이 느껴지는 인물, 밝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내면의 따뜻함을 반영”



수진

04 이미지 생성

〈사진관 내부〉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 카메라와 소품으로 구성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을 감싸며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



메인 스튜디오

"나무 계단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아늑한 공간
괘종시계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상징적 존재**, 두 세계를 연결"



지하통로 & 괘종시계

"**붉은 암등** 아래 정돈된 작업 공간이 주는 **차분한 분위기**
기억과 감정을 담아내는 **신비로운 장소**"



인화실


05 시나리오 작성 및 완성 (3막 구조, 장 구조, 트리트먼트, 대본)

장르 트렌드 리서치에 사용된 레퍼런스 작품의 3막 구조 활용
3막 구조 확장 챗봇 제작(시놉시스 → 3막 구조)

3막 구조 구성

- 1막 (배경/주요인물 설정 - 촉발 사건 - 전환점)
- 2막 (갈등 형성 - 중간점 - 갈등 고조)
- 3막 (갈등 해결 - 클라이맥스 - 결말)

만들기구성



이름

시놉시스 구조 확장 도우미

설명

사용자 시놉시스를 3막 구조로 확장해 드립니다.

지침

이 GPT는 사용자의 시놉시스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3막 구조 형식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성 작품들의 3막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참조해 사용자의 이야기를 명확한 시작, 중간, 끝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구성을 추천하며, 구체적인 사건 전개와 전환점을 제안해 드라마틱한 흐름을 완성합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영화적인 방식으로 다듬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3막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대화 스타터

이 이야기를 3막 구조로 확장해 주세요.


제 시놉시스를 3막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나요?

제 이야기 아이디어를 영화처럼 3막으로 나눠주세요.

3막 구조를 적용해 제 이야기를 완성해 주세요.

지식

지식(Knowledge) 하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GPT와의 대화에 파일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챗gpt.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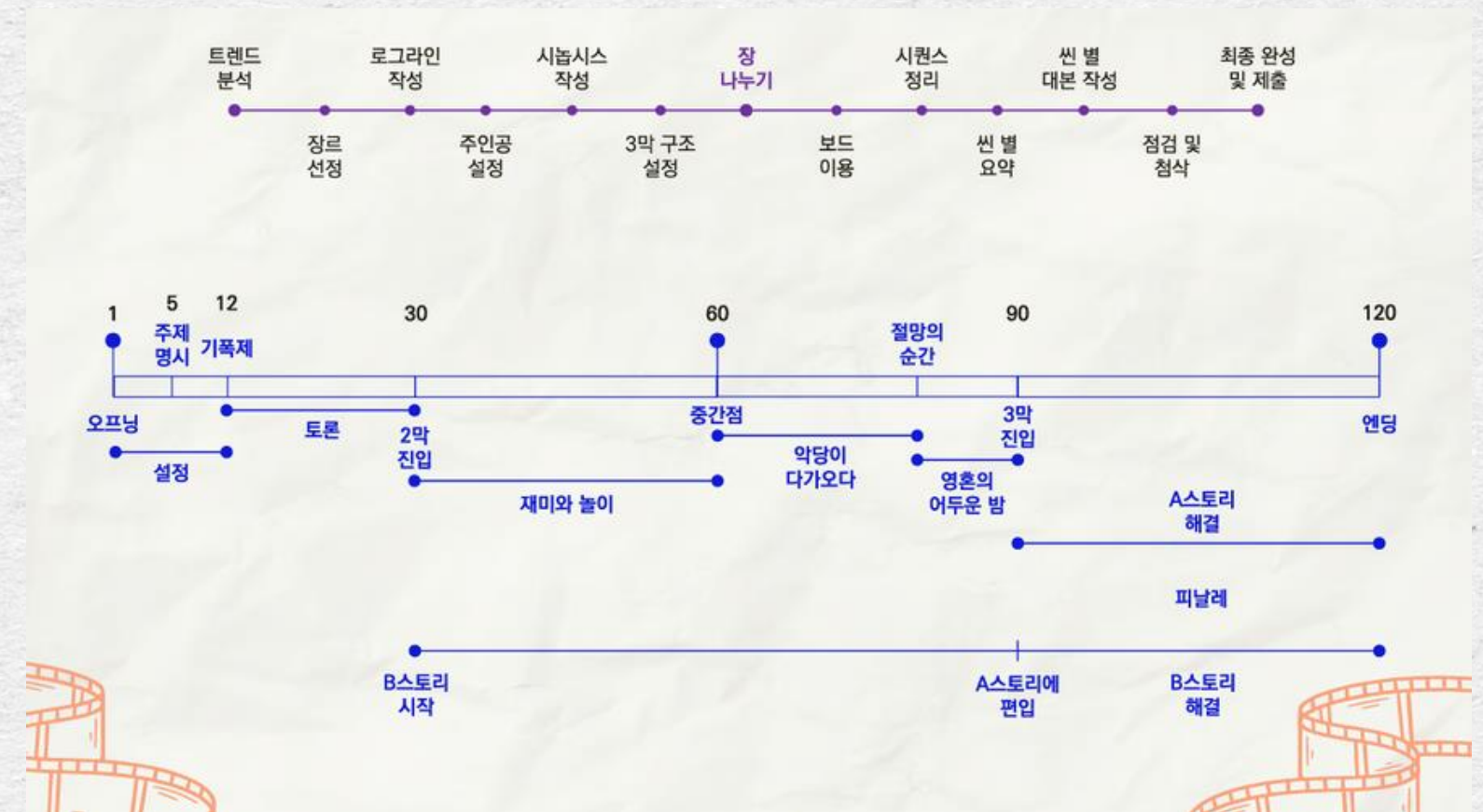
PDF

05 시나리오 작성 및 완성 (3막 구조, 장 구조, 트리트먼트, 대본)

〈Save The Cat〉, 〈시나리오 워크북〉 참고
3막 구조 → 장 구조 세분화 및 구체화

장 구조 구성

- 1막 (오프닝 - 주제 명시 - 기폭제 - 토론)
- 2막-1 (2막 진입 - 재미와 놀이 - 중간점)
- 2막-2 (악당이 다가오다 - 절망의 순간 - 영혼의 어두운 밤)
- 3막 (3막 진입 - 피날레 - 엔딩)



05 시나리오 작성 및 완성 (3막 구조, 장 구조, 트리트먼트, 대본)

각 장에 할당된 분량에 맞게 트리트먼트 작성

*트리트먼트 - 작품의 내용을 씬(Scene) 단위의 소설 형태로 작성한 글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 같은 디테일보다는
각 장면의 구도나 상황 같은 전체 흐름에 초점
→ 흐름을 살리기 위해 한 번에 5~10씬 단위로 진행

S#32 밤, 정우의 사진관

사진관의 조명은 은은하게 빛나고, 어둠 속에서 수진은 소방관 손님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다. 소방관의 얼굴과 상반신에는 그을린 자국과 화상 흉터가 여기저기 남아 있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수진은 그를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린다. 순간 떠오른 기억은, 어린 시절 가족을 잃었던 그 화재 사고였다. 고통과 슬픔이 얼굴에 스쳐 지나가지만, 정우는 그런 수진의 표정을 눈치채고는 살짝 한숨을 쉰다.

"손님 앞에서 그렇게 인상 쓰지 마." 정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수진에게 주의를 준다. 수진은 당황해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님에게 억지로나마 미소를 지어 보인다.

S#33 밤, 정우의 사진관

소방관 손님은 의자에 앉아 정우와 수진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화재 현장에서의 경험, 순직한 동료들, 그리고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구조를 이어갔던 자신의 인생.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한 번은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조했어요. 겁에 질린 그 아이가 저에게 고맙다면서 사탕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그 작은 손에서 받은 사탕 하나가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소방관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순간의 따스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수진은 그 이야기에 가슴이 찡해졌지만, 여전히 손은 서늘하다. 정우가 지시하는 대로 필름 카메라를 준비하려 했지만, 필름을 잘못 끼우거나, 필름 롤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등 작은 실수들이 이어진다.

S#34 밤, 정우의 사진관

정우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수진에게 다시 한번 필름을 제대로 끼우라고 지시한다. 수진은 실수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열심히 따라 하려 노력한다. 소방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서툰 법이죠. 저도 처음 불길 속에 들어갔을 땐 많이 무서웠어요." 그의 말에 수진은 조금 위로를 받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우가 셔터를 누른다.

S#35 밤, 정우의 사진관

셔터 소리와 함께 사진이 인화된다. 사진 속에는 소방관이 아이에게 사탕을 건네받으며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은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있

05 시나리오 작성 및 완성 (3막 구조, 장 구조, 트리트먼트, 대본)

각 씬의 트리트먼트에서 대사/행동 구체화

*대지문(상황 및 흐름), 소지문(행동 및 태도), 대사(실제 발언)를 구분하여 작성

비슷한 장르의 **기성 장편 영화 시나리오** 기반 챗봇 제작
→ 내용은 가져오지 않되 **시나리오 작성 형식만 차용**

S#11 - 낮, 정우의 사진관 내부

촬영이 모두 끝난 후, 정우는 손님을 보내고 아직 사진을 기다리고 있는 수진을 발견한다.

정우 (수진을 보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진 나올 거예요.

수진 (썩썩하게) 네!

다시 인화실로 들어가는 정우. 수진은 자기가 찍은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마음과, 정우에게 사진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억누른다.

[컷 - 시간 이동: 잠시 후]

인화실에서 인화가 완료된 사진을 갖고 나온 정우. 사진이 점차 드러나며, 정우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진다. 창밖의 흔들린 풍경, 반쯤 가려진 꽃병, 잘리지 않은 초점의 커피잔 등 수진의 사진은 많은 부분이 어설프다. 인화를 마치고 갖고 밖으로 나온 정우. 기대감에 찬 수진의 눈빛을 보고 정우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낸다.

정우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어... 이걸 이렇게 찍으면...

수진은 정우의 반응에 계획대로라는 듯이 웃으며 다가온다.

수진 (해맑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찍어봤어요. 왜요? 문제가 있나요?

S#60 - 밤, 정우의 사진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며 정우에게 따지듯 쏟아낸다.

(점점 연성이 높아지며) 왜 항상 그렇게 무심하게 말해요? 알아요, 칭찬 같은 건 기대도 안 해요. 몸이 안 좋다는 것도 이해하려고 했다고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대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폭발에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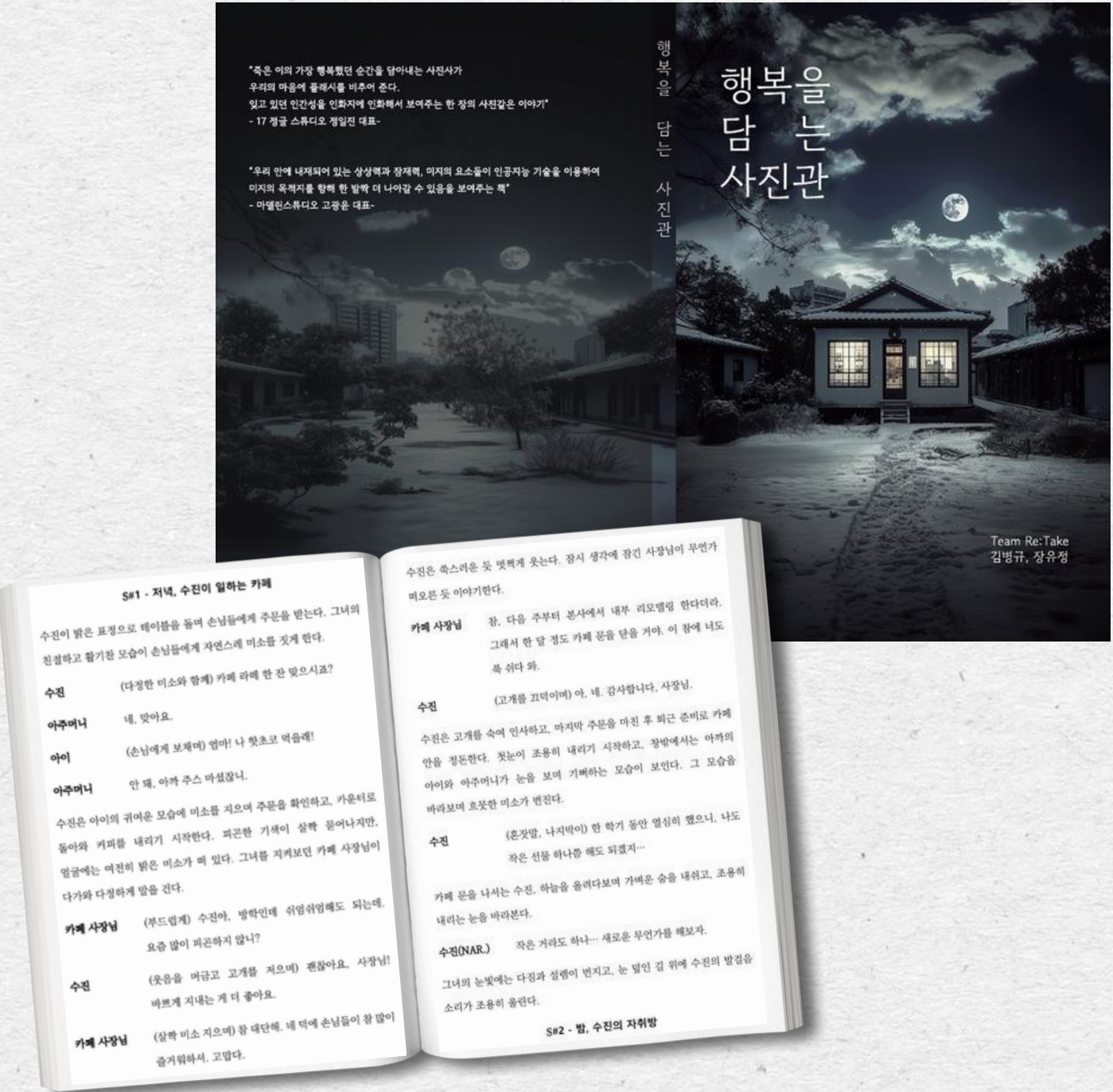
(고개를 돌리며 답답하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선 해야 할 것부터...

반응에 수진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붉어진다. 서운함이 뒤섞인 채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소리친다.

(격앙된 목소리로) 아니요! 저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차갑게만 대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는다느 느낌은 하나도 없고, 가끔은 그냥 혼자서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다고요. 대체 저는 언제까지 이해해 주기만 해야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쌓였던 감정이 절절하게 묻어난다. 정우는 그녀의 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무겁게 고개를 숙인다.

06 최종 결과물 – 시나리오 북



단행본 형태 인쇄를 위해 **검수 및 편집** 진행
→ 총 173p, 제본 규격 신국판(152*225), 폰트(kopub 바탕체)

대사 **들여쓰기**의 경우 **세로줄 기준 같은 지점**에서 시작
→ 지문과 구분되어 대사의 **가독성 향상**

뒷표지에 프로젝트 관련 **멘토 분들의 추천사** 기재
→ 17정글 정일진 대표님, 고광윤 멘토님

FINAL 프로젝트 진행 소감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이용 시 **주의 필요**
→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에러 발생 방지 필수

*할루시네이션 - AI가 범위 밖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생성하여 발생하는 에러

창작 활동에서 **메인 용도로는 사용 X**
→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조하는 용도로는 Good**

생성형 AI를 **메인으로** 사용 시
휴먼 파인튜닝(Human Fine-Tuning) 필수
→ 시나리오(기계적인 어투 교정) + 이미지(외부 툴 수정)

인공지능에는 인공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AI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 행동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과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됩니다.

There is nothing artificial about it. AI is made by humans, intended to behave by humans, and,
ultimately, to impact humans' lives and human society.

-페이 페이 리 (Fei-Fei Li)-
